특별기고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4)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중종실록"중종 35권, 14년(1519년 기묘 / 명 정덕(正德) 14년) 4월 16일(기묘) 1번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예조 참판(禮曹參判) 권벌(權橃)이 아버지의 나이가 71세요 또 풍병(風病)이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 봉양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벌(橃)이 간절히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에 인물이 많지 않으니 경(卿)과 같은 사람은 진실로 귀양(歸養)을 윤허할 수 없으나, 경의 마음이 간절하고 효(孝)로 다스리는 정치에 있어서도 마땅히 먼저 할 일이라서 특별히 윤허한다." 하고, 이어 정원(政院 :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권벌의 귀양(歸養)할 뜻이 지극히 간절하므로 윤허한 것이다. 뒤에 그가 사는 가까운 곳의 수령(守令)자리가 비거든 벌(橃)을 차임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

사신(史臣)은 '벌은 안동(安東) 사람으로 시망(時望 ; 당시 인망人望)이 있었는데, 귀양하기를 빌자 선비들이 아름답게 여겼다.' 고 논하였다.

또한 충재 선생의 연보에서도, '이 때 임금께서 바른 정치를 베푸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자, 조정에 가득한 어진 인사들이 임금의 뜻을 받들어 서로 협력하고 국가의 중흥을 다짐했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해야 할 일과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나가야 할 일이 워낙 많아서 모두들 엄정하게 개혁해야 할 일에 대한 의논에만 힘쓰다가 보니, 이러한 개혁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산한 지위에 있던 간사한 소인배들이 가끔 남모르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선생은 그 당시에 의논하던 이의 고비마다 근심할 일이 많다는 것을 미리 알고, 조정암(趙靜庵, 광조光祖, 1482-1519) 이음애(李陰崖, 자耔, 1480-1533) 신문절(申文節, 상鍋, 문절은 시호, 호는 韋庵, 1480-1530)과 더불어 매우 걱정하면서 이를 조정할 계책을 세우려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 중 하나도 따르는 이가 없었다. 선생은 드디어 어버이를 봉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힘껏 청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당시 조야(朝野)에서는 조광조를 중심으로 신진 사림파내지 지치주의 유학파의 도학정치로 개혁하려고 하여, 여러 가지 혁신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보다 빨리 완성 하려는 의욕에 불타 있었다. 먼저 성리학(道學)을 숭상하여 사장학(詞章學)에 물든 훈구파를 일소하고자 하여, "근사록"을 성리학의 본원이라 하여 가장 중시하고"성리대전性理大全"과"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지침서로 하여"소학小學"까지 경연에서 진강하기에 이른다.

또한 선유(先儒)를 표창하려고 하여 조광조가 중종 12년(1517년)에 상소하였다. 그 내용은 김굉필(金宏弼)과 정여창(鄭汝昌)을 포창(褒彰)하여 사문(斯文)을 부식하도록 하자, 중종이 윤허하여 양현(兩賢)에게 각각 우의정에 추증하고 그의 자손들을 녹용(錄用)하였다. 또한 정몽주(鄭夢周), 김굉필, 정여창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여, 동년 8월에 정몽주만 문묘에 종사하게 되니 조선왕조 개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 삼현(三賢)이 조광조 자신의 학문적 연원이었던 만큼 논란이 적지 않았었다.

그리고 조선이 개국하면서 숭유배불(崇儒排佛) 정책을 표방하였고 정도전(鄭道傳)과 권근(權近) 등에 의해 유학을 정학(正學)으로 하고, 유학 이외의 불교나 도교 그리고 미신을 이단이나 좌도(左道)라 하여 배격하였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와 세조(수양대군) 및 왕비·후궁·궁녀 등의 불교 신봉이나 도교와 민간신앙의 요소가 있는 푸닥거리 행사가 궁중에서도 근절되지 않았다. 중종조 즉위 초부터 여러 유신(儒臣)에 의해 도교와 민간신앙의 요소가 있는 천지성신(天地星辰)에 대한 초제(醮祭)를 주관하는 소격서(昭格署) 혁파와 각 지방에 있는 미신적인 음사(淫祀 ; "제사할 대상이 아닌데 제사하는 것을 음사라 한다.非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예기禮記" '곡례曲禮' 하下)를 철폐할 것을 여러 해 동안 논쟁을 수없이 벌여왔다("조선왕조실록"에 '소격서'를 검색하면 307건 가운데 중종시대에 203건 나온다) 즉 초제는 사도(邪道)로서 미신을 조장하여 백성의 교화를 해칠 뿐 아니라 제사의 전례(祀典)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며 소격서 역시 국가의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혁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종은 예로부터 내려오던 고사(故事)를 가벼이 없앨 수 없다고 맞섰으나, 중종 13년(1518년) 조광조가 동료들과 함께 그 폐단을 극론하여 동년 9월에 초제를 폐지하고 소격서를 혁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초제의 폐지와 소격서 혁파에 대해서는 도학파 지치주의 개혁을 주창하는 사림파 주장이 모두 옳다고만 할 수는 없었다. 태조 이성계가 비록 명(明)나라 황제에 대해 신(臣)으로 칭하여 제후국으로 자리 매김하였지만, 태종 때부터 광해군 때까지 제천(祭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왔다. 반면 오히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치부한 인조 때 이후 철종 때까지 별로 논의가 없다가 고종이 1897년 10월 대한제국(11일) 황제로 되고 원구단에서 즉위식(12일)과 관련하여 논의가 빈번해졌었다. 즉 그것은 천자(天子)만이 천지(天地)에 제사하고 제후는 산천(山川)에 제사한다는 유교의 제사규범에 따라, 중종 당시 제후국인 조선이 제천행사를 행한다는 것은 비례(非禮)로 인식되었다는 것으로, 비록 후대의 역사적 평가라고 하지만 사대주의와 관련하여 자주적 의식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묘사화(1519년 12월) 직후인 중종17년(1522년) 임금은 모후(母后)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의 병을 낫게 한다는 이유로, 많은 대신들의 반대 속에 다시 설치를 명하였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 아주 폐지되었다.

조광조는 17세 때 어천찰방이던 부친을 따라가 당시 무오사화로 화를 입어 평안도 희천에 유배 중이던 김굉필에게 수학하여 사림파인 김종직(金宗直)의 학통을 이어받았다. 중종반정 후인 1510년 사마시에 장원으로 진사로서 성균관에 입학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외갓집을 살려야 겠소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한(漢)나라 때에 흉노는 큰 문제여서 때로는 군사로 공격하였지만 때로는 공주를 시집보내어 화친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진(晉)나라 때에 이르러서 흉노 세력은 때로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중원에 있는 왕조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남흉노였다.

사실 이들 남흉노들은 그들은 중원의 왕조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중원(中原)의 문화를 흡수하고 있었는데, 삼국시대에 위(魏) 나라 사람들은 남흉노의 5부에 사는 사람들을 병주(幷州, 산서성 일대)의 여러 군에서 그들의 백성들과 섞여 살게 하였다. 그러자 이들 남흉노들은 예전에 한(漢) 왕조의 공주가 흉노에 시집왔으므로 자기들은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씨 집안은 자기들의 외가라고 하면서 성(姓)조차도 그들이 본래 성인 난제(欒提)를 한왕조 황실의 성인 유(劉)로 바꾸었다.

하여간 이때에 남흉노의 좌현왕인 유표가 죽자 그의 아들인 유연(劉淵)이 그 자리를 이어 받았다. 흉노의 좌현왕이란 중원지역과 인접한 흉노지역의 책임자이다. 이 좌현왕이 된 유연은 어려서부터 준수하고 특이하였는데, 상당(上黨, 산서성 長治市) 사람인 최유(崔游)를 모시고 중원지역의 학문인 경전과 역사를 공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는 무예도 중요하다고 하여 무예 공부도 하였는데, 장성하자 원숭이처럼 긴팔로 활을 잘 쏘았으며, 힘이 세서 보통사람을 뛰어넘었고, 자태와 모습이 두드러지게 컸다. 문무를 겸비한 것이다.

중원에서 진(晉)왕조가 들어섰을 때에는 망하였을 때에 유연은 인질이 되어 낙양에 가 있었는데, 유연의 문무 재주가 드러나자 진의 황제와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유연의 재주를 보고 그에게 벼슬을 주어 삼국에서 하나 남은 오(吳)를 정벌하게 하고, 또 흉노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였다. 물론 유연이 흉노족이기 때문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 토론 끝에 결국 진 문제 태강 10년(289년)에 조서를 내려서 유연(劉淵)을 흉노북부도위로 삼았다. 흉노북부도위란 흉노의 북부지역을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관직인 것이다. 공식적으로 흉노족으로 진(晉)의 관직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2년 뒤에는 건위(建威)장군·흉노오부대도독(匈奴五部大都督)으로 삼았다.

그런데 유연은 재물을 가볍게 생각하고 베풀기를 좋아하였으며 마음을 기울이며 물건을 가지고 접대하였으므로 많은 호걸들과 유주(幽州)와 기주(冀州)의 이름 난 유사(儒士)들이 대부분 그에게 가서 귀부하였다. 이렇게 세력을 모으자 유연은 딴 소리를 하였다. 우리 흉노는 한왕실의 외가이고 그래서 성도 유(劉)라고 바꾸었다. 그런데 우리 외가를 조씨(曹氏)의 위(魏)가 망쳐 놓더니 다시 사마씨(司馬氏)가 그 뒤를 이어 받았다. 이제 우리 외가인 유씨의 나라를 다시 일으킬 사람이 중원에는 없다. 나 유연이라도 우리 외가 한(漢)을 부흥시키겠다.

사실 이때에 진(晉)에서는 사마씨들이 서로 권력을 잡겠다고 자고나면 반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8왕의 난이다. 그리고 황후 가남풍(賈南風)이 전횡을 하여 대외문제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 중원에 와 있던 유연은 이 실정을 잘 안 것이다. 그리고 명분을 만든 것이다. 드디어 유연은 나라를 세우고 외가를 부흥시킨다는 명분에 걸맞게 국호를 한(漢, 후에는 전조로 바뀜)이라고 하였다. 이 유연이 세운 나라에 의하여 진(晉)의 회제와 민제는 잡혀 죽고 진은 남쪽으로 쫓겨나서 동진(東晉)이 된다.

유연이 나라를 세운 명분은 정당한가? 아닌가? 세상사에서 명분이나 정의 같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행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의와 명분이 실력이나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실현될 수 없다. 힘이 있으면 정의와 명분은 만들어 갈 수도 있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돌아 볼 일이다.

특별연재

국헌공 權伋과 漢文小說

▣ 申 海 鎭(전남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강로전〉

번역과 주석

동사잡록본 〈강로전〉

〈지난호에 이어서〉

"즉각 그와 같이만 한다면, 너에게 마땅히 제일 큰 공이 돌아갈 것이로다."

드디어 철기병 3,000명을 주어 선봉으로 삼았다.

경서는 요동성에 이르러 요동성을 지키는 장수에게 '거짓으로 내응한 체 하고 장차 반란할 계획을 세워서 누르하치를 때려죽이고자 한다.' 는 서신을 보냈다. 계획이 이미 확정되고 거사 날짜까지 정했는데, 그사이 홍립이 그 사실을 염탐하여 알고는 놀라며 생각하였다.

'필시 나에게 화가 될 것이다.'

홍립은 급히 누르하치에게 이 사실을 일러바쳤다. 누르하치는 대노하여 경서를 잡아 들여서는 살을 바르는 극형에 처하도록 명령하였다. 경서가 홍립을 크게 꾸짖으며,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말하였다.

"이 일은 홍립이 먼저 주장해 놓고 막판에 말을 뒤집은 것입니다."

누르하치는 또 홍립도 잡아들여 발가벗겨 묶어놓고는 칼을 어지럽게 마구 휘두르며 말하였다.

"내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으로 너를 대우함이 형제 이상이었거늘, 너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야 본래 교활하게 남 속이는 것를 타고났지만 네가 배반하여 나를 죽이고자 하다니, 어찌하여 배반하였느냐?"

홍립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제가 비록 타국의 사람이지만 이미 금국(金國)의 신하가 되어 큰 공로도 이루었고, 넓은 하늘과 같이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거늘 어때 감히 배반하겠습니까? 경서가 무지한 무사로서 스스로 그 화를 초래해 놓고 아무 잘못 없는 저를 억울하게 함정에 빠뜨렸으니. 하늘과 땅의 신(神)만은 진실로 이 마음을 환히 아실 것입니다"

이때 귀영가가 급히 들어가 아뢰었다.

"이 사람은 진실하여 거짓이 없고 신념이 도타우니 정녕 두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사람이 왜인의 간계를 고발하였고, 이번에도 이 사람이 경서의 음모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시종일관 충성을 드러내어 결단코 배반하는 마음이라곤 없었거늘, 부질없이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말을 믿으셨다가는 바로 그 계책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누르하치가 말하였다.

"너의 충간이 없었다면, 어진 선비를 잘못 죽일 뻔하였도다."

몸소 홍립의 결박을 풀어주고 잔을 들어 위로하며 사과하였다.

"이 늙은이가 한순간 잘못 알고 그대를 괴롭힌 것이니, 행여 마음에 두지 말게."

홍립이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였다.

"제가 만일 잘못된 짓을 한다면 하늘이 저를 버릴 것입니다. 하늘이 저를 버릴 것입니다."

마침내 요동성이 함락되자, 누르하치는 자녀 및 옥과 비단 등 함께 심양으로 돌아가서 집터를 잡아 거처를 옮기고는, 홍립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궁결을 세우고 관부(官府)를 배치하는 등 대개 중국의 제도를 본떠서 제도가 거의 갖추어졌다. 누르하치가 기뻐하며 홍립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재주는 원 태조(元太祖)의 재상 야율초재(耶律楚材)에 못지않으니, 의당 개국 제1공신이 될 것이다."

즉시 요동성에서 노략하여 양녀(養女)로 삼은 중국 여자 중에서 곱고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 예를 갖추어 홍립의 아내로 삼게 하니, 이른바 소학사(蘇學士)의 딸로 오랑캐들 사이에서 옥면공주(玉面公主)라 불리는 여자였다. 그렇지 않아도 홍립은 지난 날 사위 삼자는 말을 사양한 것를 후회하고 있었는데, 소학사 딸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보고는 흔연히 데릴사위로 들어갔다.

홍립은 소씨에 대한 애정이 돈독해지면서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하였는데,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조선에 있을 때 아내도 이미 죽었고 딸도 일찍 잃어 오직 늙으신 어머니만 계셨는데, 추측하건대 돌아가셨을 듯하오. 얼굴을 들어 하늘 아래 있지만 몹시 외로운 신세라오. 고국에 돌아가자니 고국 사람들이 모두 나를 더러이 여길 것이요. 금(金)나라에 머물러 있자니 금나라 사람 가운데는 가까운 친척 한 사람도 없구려 그래서 이 늙은이의 마음이 한탄스럽고 또한 슬프기만 하다오. 그대를 믿고 가까이하여 나의 깊은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니, 살고 죽는 것, 헤어지고 만나는 것은 지금부터 정해졌소. 그대라고 어찌 감회가 없겠오?"

소씨녀는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첩은 못나고 허약한 몸으로 문 앞의 길조차 모르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오랑캐에게 내몰려서 요하(遙河)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첩은 그때 생명을 보전할 생각이 없었건만, 하늘이 도움에 아름다운 두사람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하는 것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자의 첩으로 받들게 되니, 있어야 할 곳를 얻었습니다! 있어야 할 곳을 얻었습니다! 더구나 어르신(老爺)께서는 크고 넓은 집에 금이 쌓여 있고 높은 벼슬자리에까지 계시니, 결혼하여 함께 늙을 수만 있다면 첩에게는 영광이옵니다. 바라건대, 어르신께서는 오늘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천첩(賤妾)은 일평생 다할 때까지 정절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홍립은 그녀의 뜻이 가련하고 슬펐으나 현명한 배필을 얻음에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아내를 가까이하고 사랑함에 밤낮이 없었다. 게다가 누르하치가 비단과 주옥을 보내고, 성악(聲樂)과 노리개를 보내어 홍립에 대한 총애가 남다름을 더욱 더하니, 그의 욕망에 딱 맞았다. 홍립은 소씨녀와 매일 저녁마다 마주앉아 술을 마시고는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며 말했다.

〈다음 호에 계속〉

세무법인 和仁

◎ 세무상담, 세무신고대리, 기장대리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및 신고대리
◎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세무컨설팅

대표 / 세무사 권 혁 창

Mobile:010-6304-6565
E-mail:fax21@yahoo.co.kr

본 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7번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동부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청과물시장 3층 41-1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마포종친회 4월 월례회 안내

회원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4월 월례회」(정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4월 28일(목) 오후 7시 (매월 4번째주 목요일)
■ 장 소 : 우가촌(가마솥설렁탕) : 02)702-5047, 011-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공덕역 ⑤번출구
지하철 6호선 공덕역 ⑥번출구→공덕오거리→르네상스타워(옆)→공덕지구대(파출소)뒤→우가촌(설렁탕)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 02)718-8437, 017-271-8437
■ 총 무 권일부 : 02)335-1085, 010-3796-6980

2011년 4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